

완성본이 아니며, 당장은 ~함체로 작성하였음

## [ 등장인물 ]

EVE 회장, 회장의 첫째 딸(편의상 A), 회장의 둘째 딸(편의상 B), A의 결혼 직전의 애인(플레이어, 편의상 P)  
회장의 딸들은 EVE의 직원으로 있음

## [ 시나리오 ]

### < 과거 >

(이 내용을 함축적으로 담은 떡밥 단서들이 필요)

A는 어렸을 때부터 남달랐음, 외모 성격 능력 모두 훌륭해 사랑받으며 자람

B는 반대로 외모도 못나고 툭하면 실수하여 회장에게 예쁨 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며 살았음

그래도 B는 회장에게 예쁨 받기 위해서 항상 노력해 왔음 하지만 서로의 마음은 항상 빗나갔음

### <추가 설정> - 넣을까 말까

+ 입양아 설정 추가

B는 회장이 회사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 입양한 아이였음

때문에 정이 없고 남 같지만 데리고는 살아야 하는 상황

회장은 EVE SCIENCE를 운영

이브 사이언스 실험실에서 연구 도중 새로운 원소를 만들어냈으며 Cainium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연구를 시작함

Cainium에서 높은 잠재력 발견, Cain이라는 활용도가 매우 높은 물질을 제작함

Cain을 이용한 도구들을 개발하며 사람들의 편의성 강화를 위해 힘씀

해당 개발/사업을 하며 국가 및 여러 단체에서 지원을 많이 받고 돈도 많이 벌게 됨

(개발 도중 안전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들과 카인 자체의 불안정성이 내부에서 재차 확인되었음)

그럼에도 기업은 빠르게 상용화하여 상업적인 이윤을 만들어내기 위해 문제점을 무시하고 개발을 진행함)

시간이 흐르고 회장의 건강악화로 인해 상속을 고민할 시기가 왔음

당연히 A한테 모든 지위와 유산이 돌아갈 게 뻔함 - B가 그동안 노력해왔던 것들에게 배신당함

B가 그동안 쌓여왔던 분노로 인해 평생 가져보지 못한 것들을 가지기 위한 일을 꾸밈

A가 카인 정제소에서 야간까지 관리를 맡던 날, B는 A에게 직접 전해줄 것이 있다며 찾아감

만나고 나서 B는 A를 기절시킨 후 높은 곳에서 밀어 살해함

그 후 정제소를 20분 뒤에 폭파되도록 설계하고 도망침

-> 이게 기존 폭파 사건

### < 추가 시나리오 > - 떡밥용, 뒷이야기를 위한 스토리 (없어도 됨)

회장의 건강이 악화되어가니 주변 사람들이 돈 욕심에 회장에게 잘 보이려 애씀

회장은 혹해서 돈을 막 쓰고 다니며, 심지어는 딸들에게 물려주려 했던 재산들과 지위에도 손을 대려 함

- 기존 A에게 가진 재산과 자리 모두 양도하겠다는 유서를 작성해 놓은 후였으며, 이를 A가 몰래 확인한 상태  
A는 조급해지기 시작함, 급기야 회장 살해 시도  
하지만 실패하였고 회장은 분노와 배신감에 유서를 수정하고 A를 죽이려고 계획함

계획한 날이 B가 A를 죽인 날과 같은 날임

사건 당일, B가 설계한 폭파 시간보다 10분 일찍 폭발함 - 때문에 B에게 작은 화상 흉터가 있음  
애초에 회장이 먼저 폭발을 설계한 것이었음 (이 사실을 B는 처음에 알지 못함)

회장은 폭파 사건 후 A의 사망과 폭파 사건 전체를 덮기 위한 일을 함  
과정에서 P에게 거짓 문자를 보냄  
P는 갑작스럽기도 하고 A의 문자 습관과는 다른 점이 많은 문자를 보며 의심하였으며,  
여러가지 정황을 보고 확신하여 복수를 꿈꾸게 됨

와중 EVE에서는 Cain을 이용하여 개발한 새로운 도구인 그랜드, 그라비토, 루모의 테스터를 모집하였음  
P는 모습과 신분을 위장한 후 테스터에 지원하였음

#### < 현재 >

(0-1 ~)

우주정거장으로 이동한 후 테스트는 시작되었고 우연히 B가 P의 테스트에 감독을 맡게 되었음  
P는 도구들의 사용법을 배우며 앞으로 나아감

(Grand 중/후반 ~)

B는 P를 정체를 알아챘으며 P가 이곳에 오게 된 목적을 파악함 (알아채는 수단을 구체화하기 - 목소리로 의심 후 뒷조사?)  
(P는 테스트 감독이 B인지 모름, P의 목소리도 안내 음성과 같은 음성으로 변조되어 들리기 때문에 목소리로 유추 불가능)

P가 A의 죽음에 대해 얼마나 아는지 알아내기 위해 처음엔 친절하게 다가가며 테스트를 어쩌다 신청하게 됐는지 등을 물어  
보며 친밀감을 쌓아감

(Gravito 중/후반 ~)

P가 테스트 감독과 어느정도 편해졌다고 느껴 점점 본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보를 감독에게 물어봄  
(회사 직원이니까 아는 게 있지 않을까 해서 // 폭발 사고가 있었나요? 같은 질문들을 함)

P는 의심 가는 인물인 B의 이름을 언급하였으며 ("혹시 B라는 직원에 대해 아는 게 있나요?" 같은 질문)  
그 후 B는 당황하기 시작하고 불안감에 휩싸여 조금 버벅거리기도 하고 말실수도 함  
(P가 B를 의심하는 과정 - P는 A가 사고사가 아닌 살해 당했던 걸 짐작하고 있음  
사고가 있기 전 A가 상속 문제로 예민해 있던 것을 기억하며, 평소 A와 B의 사이가 좋지 않은 걸 알고 있음  
회장에게 두 딸 밖에 없기 때문에 상속 문제로 유일하게 엮일 사람인 B를 자연스럽게 의심하게 됨 )

(Lumo 후반 ~)

B는 위협을 느껴 A와 관련된 사건의 완벽한 끝맺음을 위해 사고사로 위장한 살해를 한번 더 계획하게 됨

테스트 도중 시스템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를 계획하였으며 곧 실행에 옮김

B는 모른척하며 고의로 오작동을 일으켜 살해하려 했지만, P의 기지로 인해 실패로 돌아감 - 루모 마지막 스테이지

(추후 나올 스테이지 ~)

P는 복수심을 원동력으로 삼아 끝까지 나아감

B는 이를 막으려 하지만 P가 3가지 도구를 능숙하게 사용하여 모두 극복하며 헤쳐나감

(엔딩 ~)

P는 마지막 엔딩을 위한 장소에 도착, 모든 걸 끝낼 생각으로 왔음

B는 P를 어떻게든 막아보려 설득하지만 P는 결심하였음

결말 - 너죽고나죽자 엔딩 (근데 P는 나중에 어떻게든 살아남)

P가 정거장을 (어떻게든) 폭파시켜서 스토리를 모두 끝내거나 - 연출은 이게 더 쉬움

P가 그라비트를 이용해서 정거장을 행성에 충돌시켜 스토리를 모두 끝냄 - 이걸 무기 컨셉을 이용한 엔딩이지만 연출이 힘들

이로써 P의 초목표를 이루며 엔딩